

광주의 상흔을 생각하며 삼켜낸 '검은 울음'

수목화 대가 김호석 초대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주관 24일까지 전남대 용지관서 “붓끝에 5·18 은유·상징 담아”

현대 수목화의 대가 김호석 화백은 지난 1년간 5·18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며 작업에 매진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그 결과물을 김호석 초대전 ‘검은 울음’을 통해 선보이고자 한다. 29점 중 21점이 광주의 상흔을 생각하며 붓을 든 신작이다.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첫 전시로 광주시립미술관 ‘검은 먹, 한점’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이강, 세상을 품다’를 진행한 그가 이후 작품을 선보일 곳으로 다시 선택한 곳은 광주와 5·18이다.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전시의 의미를 밝힌 김 화백은 “부정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사람들의 백비를 세운다는 맘으로 전시에 응했다. 붓끝에 5·18의 은유와 상징을 날카롭게 명징했다”며 “매일같이 작업실에서 5월의 현장을 마주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다. 쥐어짜듯이 작

품에 입했다”고 말했다.

전시작 중 ‘마지막 입술’은 실제 1980년 5월 당시 한 외신기자가 찍은 광주의 모습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총에 맞아 쓰러진, 교련복을 입은 학생 옆에는 으스러진 단팥빵이 떨어져 있다. 과거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군사 교육을 위해 국가가 정한 교련복이지만, 그를 표적 삼아 겨누는 군인의 총구가 아이러니 하다.

그 옆에는 한 쌍을 이루는 작품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걸려있다. 단팥빵을 향한 개미 떼들을 묘사한 그림으로 무고한 도시민을 공격한 국가의 비열한 야만성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 ‘쥐꼬리’는 5·18 마지막 항쟁지인 5월 27일 옛 전남도청을 은유하고 있다. 김 화백은 “그 당시에 건물에 쥐가 광장히 많았다고 들었다. 쥐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인데, 마지막 항쟁일 밤 긴장감 가득한 공간에서 구석에 숨어 쥐꼬리의 흔적만 남기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다”고 말했다.

그 옆에는 실제 쥐꼬리에 먹을 묻혀 그린 추상화 ‘꼬리가 기억하는 역사’가 걸려있다. 무자비한 총소리가 들리고 흔비백산해 사방으로 움직이는 쥐들의 이동을 상상한 것이다.

이외에도 김 화백의 대표작으로, 그 유명한 눈이 네 개 달린 황희의 초상화도 감



김호석 작 '마지막 입술'.

전남대 5·18연구소 제공

상할 수 있다. 국가의 폭력을 매서운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듯하다. 또 전남대 출신의 저항시인 김남주의 초상화와 민중항쟁

도, 광주정신을 나타내는 대나무와 낮 등의 그림도 눈길을 끈다.

김 화백은 전통 수목화에 대한 끊임없

는 연구와 실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대표 수목화가다. 그는 전통 수목화의 맥락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재해석해 시대적 감각을 담은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9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주목받았으며,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인물, 자연을 소재로 우리 시대의 정신성과 삶을 형상화하는 데 몰두해 왔다.

이번 전시는 무등산의 근원지로 불리는 광주에서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신작들은 5·18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의 본질과 생명의 숭고함을 형상화하며, 무엇보다 검은 먹으로 형상화되고 예술로 승화된 고통이 이번 전시의 의미를 한층 깊이 있게 만든다.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은 “김호석 화백은 5·18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해 목소리를 잃은 이들을 대변한다. 그의 작품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되살리고 세대를 연결해 공동체를 향한 치유와 성찰의 공간을 마련한다”며 “특히 이번 전시는 전쟁과 같은 지구적 복합 위기의 시대, 5·18을 통해 세계의 아픔을 공유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과 지난 18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CC 제공**

ACC-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문화예술 활성화

18일 동국대서 콘텐츠 교류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기관 간 교류 협력망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동국대학교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ACC 이강현 전당장을 비롯해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정길화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콘텐츠 공동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분야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국민들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두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한 창의적인 문화 프로젝트 추진 및 글로벌 한류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박찬기**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은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확산을 위해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 8월 설립됐다.

2015년 개관해 올해 9주년을 맞은 ACC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 기관으로 아시아, 세계와 교류하며 문화 자원을 수집·연구하고 그 결과를 문화콘텐츠로 창·제작해 전시, 공연, 교육, 축제 등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ACC가 글로벌 한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과 아시아,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기**

2024 죽형 조태일 25주기 문학축전 열려

19일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기념관 박석준 시인 '제6회 조태일문학상'

‘2024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이 지난 19일 곡성군 죽곡면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여 있는 시, 움직이는 시’를 주제로 조태일 시인의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석곡지역아동센터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의 개막 무대 △조태일 시인기념사업회 이사장 인사말 △제6회 조태일문학상 시상식 △공연 △시 낭송 △조태일시인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박석준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어두운 시대 강건한 목소리로, 자연과 하나가 된 아름다운 순정으로 시를 노래한 조태일 시인이 떠난 지 25년이 됐다”며 “조태일 시인이 시의 출발이자 귀착이라고 말한 곡성을 다시 방문하니 죽형이 더욱스럽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변함없는 애정으로 문학축전을 지켜오신 기념사업회에 진심



지난 19일 곡성군 죽곡면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2024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이 개최된 가운데 관계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으로 감사하다. 조태일 시인이 발간했던 ‘시인’ 지를 5년 만에 복간했다는 소식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집 ‘의자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로 제6회 조태일문학상을 수상한 박석준 시인은 “제 시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박찬기**

이날 문학축전에서 여는 무대로 석곡지역아동센터 오케스트라가 ‘위풍당당행진곡’과 ‘작은별’을 연주했고 정원도 시인의 ‘매시업 국토’, 류경 시인의 ‘카자흐 초원을 떠나며’, 박두규 시인의 ‘흐르지 못한 시간들’, 한중근 시인의 ‘육이’가 낭송됐다. 부대행사로 전국 시인들의 시화전도 펼쳐졌다. **박찬기**

국윤미술관, ‘빛과 그림의 노래’ 정용규展 개최

내달 3일까지 제2전시실

국윤미술관은 오는 11월3일까지 국윤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빛과 그림의 노래 - 정용규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품과 연결된 작가의 내면세계를 통해 희망을 꿈꾸는 밝은 에너지의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정용규 작가는 신화, 전설, 모자, 가족, 해바라기, 부엉이 등 유년 시절 경험했던

특정 공간이나 대상들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연유된 것을 소재로 화폭에 담아낸다.

회화 2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지역민들에게 작가의 독창적인 기법과 작업에 몰입하는 밀도 있는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무료 관람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윤미술관 홈페이지



정용규 작 꿈과 사랑의 노래. **국윤미술관 제공**

(<https://cafe.daum.net/yyw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7335. **박찬기**

진일보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